

영광쌀, 전남 최초 연간 505억 원 판매

영광군 농협쌀 전남 RPC 최초 505억 원 판매

여러운 여건 속 쌀 생산 노력한 농업인에 감사

영광군은 전남농협 관내 26개 미곡종합처리장(RPC) 중 최초로 영광농협 RPC가 쌀 판매 연간 505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쌀 판매 505억 원은 20kg 기준으로 120만 포대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그동안 505억 원의 쌀 매출액을 달성을 위해 영광군은 고 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기공시설 개보수 62억4천3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비 138억1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과 2019년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벼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 RPC 품질 저

하벼 수매에 따른 수율하락분으로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매년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으로 2억2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며 2020년에도 RPC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5억2천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광농협 관계자는 “쌀 판매 505억 원 달성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정신으로 벼를 재배해주신 영광 관내 5,000여 명의 농업인의 노고와 김준성 군수, 강필구의 장 및 영광군의회가 영광에서 생산하는 7만여 톤의 쌀을 전량 영광통합RPC가 매입·판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 가능했



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광군 김준성 군수는 “전남농협 RPC 최초 쌀판매 505억 원 달성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원 기자

고흥군,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업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농업인의 농작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



고흥군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대교육장에서 학습단체 회원,

청년창업농, 귀농인 등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 및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농업인의 농작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군 보건소에서 결핵 예방 교육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과 국가 기본계획을 참석한 농업인에게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군은 올해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작업 안전 모델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5개소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농작업 환경점검, 안전조치, 안전교육 등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과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 개선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 하겠으며,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건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2008년부터 농작업 환경개선 관련 사업을 추진, 2019년까지 212개소에 편의장비 및 안전보조구 3,460여점을 보급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최종 선발...근무 시작

화순군은 올해 겨울방학 때 군 청과 화순읍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업무를 지원할 아르바이트 대학생 3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이날 군은 설 명회를 열고 화순군 현황과 비전,

근무 중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조형재 종무과장은 “대학생 아

르바이트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경험과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짧은 기간

이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



현장 업무 보조, 전산과 도서 정리, 대장정리 등 업무를 지원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수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4개 분야 15개 사업, 1월 23일까지 신청

여수시는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총 4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8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식량작물 3종, 원예작물 6종, 축산 3종, 특용작물 3종 등이 있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부로 느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대상자는 내달까지 현지실태 조사와 농업산학협동의회를 거쳐 선정되고, 사업은 3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여수=김도현 기자



해 확인하거나, 미래농업과(061-659-4494)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대상자는 내달까지 현지실태 조사와 농업산학협동의회를 거쳐 선정되고, 사업은 3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곡성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나서

곡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마트, 카페 등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명절 선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여전하다. 이번 점검은 마트 및 유통 매장 중심으로 실시되며 설 명절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및 인형류, 벨트, 지갑), 1차 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점검반은 마트 등 매장에 방문해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기준 준

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제조사에 대해 포장 검사 명령을 하고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에 따라 과대포장 기준 위반으로 판명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이 높아진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군, 주요 관광지 설 당일 무료 개방

여행자의 도시 담양군은 ‘설’ 당일인 25일 군 관리 유료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출향인, 관광객들에게 설 당일 담양 관광명소 6개소를 무료 개방해 보다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무료개방 대상 관광지로는 담양

의 대표 관광명소인 죽녹원, 메타세쿼이아원, 소쇄원, 한국대나무박물관, 한국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관광편의시설 점검 및 종사자 친절교육 등 관광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넓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www.jepa.kr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건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법률 자문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